

01 교회소식

매일 밤 올리는 합심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대로 성결한 삶을 살고자 날마다 성전에 모여 불같이 기도하는 성도들.

02 생명의 말씀_ 십계명 시리즈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 진리 안에 거하며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면 뒷대에서 쌓은 복까지 다 누릴 수 있다.

03 기획특집

불같이 기도하는 방법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불같은 기도를 드리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04 간증

“우연이 아닌 성령의 인도였어요~”

당회장님 저서에서 삶의 행복을 찾는 콩고민주공화국 국회의원 알랭 루밤바 성도와 많은 질병이 치료된 김향순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653호 2014년 9월 28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만민기도원 주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은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기에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죽음 앞에서 기도함으로 생명을 연장받았고, 엘리야 선지자는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가뭄 중에 큰 비를 내리게 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아 내렸다. 우리 교회도 개척 이후 32년 동안 불같은 기도를 쉬지 않았기에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창대히 이룰 수 있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만민기도원 주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오는 9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주제는 ‘온 영’(히 10:22)이다. 이번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그동안 믿음의 반석과 영, 온 영을 향해 부단히 달려온

성도들의 기도제목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 신속히 열매 맺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매일 밤 8시 40분 예능위원회 코러스의 웅만한 준비찬양으로 시작해 9시부터 11시 40분까지(토, 주일은 11시까지, 금요일은 금요일예배)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의 인도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합심기도를 올린다.

만민기도원에서는 매년 두 차례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외에도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주관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돕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질병 치료나 문제해결을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평일에는 오전 기도원 예배와 ‘환자를 위한 오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또 매월 마지막 췌 주에는 은사집회를, 격월로는 ‘환자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열고 있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 담을 헐고 질병 치료 등

각종 인생 문제를 해결받아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인 암을 비롯해, 뇌졸혈, 심장병, 간질, 관절염, 기관지 천식 등 각종 난치병과 불치병을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받아 영광 돌리고 있다.

비인두암 4기로 사형선고를 받은 이민수 성도(63)는 “코 속의 종양 크기가 5.5cm였고, 암이 입과 선과 경추, 어깨뼈, 척추, 꼬리뼈까지 전이 된 상태였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을 때 뜨거운 열기가 머리에서 척추까지 임했는데 통증이 사라지고 종양 크기가 줄었지요. 이후 기도원 은사 집회에 참석해 시간 시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좋아했던 것들을 통회자복 했습니다. 원장님께 기도를 받을 때마다 뜨거운 기운이 온몸에 퍼지며 병세는 호전됐지요. 그 뒤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병원 검사 결과, 코 속 종양과 입과선에 있던 전이된 암

이 뿌리째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지원 집사(45)는 “올 초 왼쪽 검지 손톱의 한 부분이 까맣게 타들어 가서 기도원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원장님과 상담 중에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작정으로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시작된 특별 다니엘철야 42일간을 저녁 금식을 하며 예물과 시간을 작정해 드렸어요. 매시간 원장님께서 해 주시는 멘트를 붙들고 기도하며 통회자복을 했는데,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에는 성령의 불이 임해 온몸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어요. 그 뒤 손톱이 자라나기 시작해 정상에 됐습니다.”라고 했다.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고통받던 중 전도된 김은숙 성도(34)는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 문제의 원인이 제게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뒤 매일 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 하게 해달라고, 나의 죄를 정녕 회개하길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했고, 뱃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통회자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졌어요.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행복합니다”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11)라고 말씀하셨다. 자녀들의 상황과 형편을 가장 잘 아시고 제일 좋은 것으로 응답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은 오늘도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

*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와 GCN 방송(www.gontv.org)을 통해 생중계돼 전 세계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4~6)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는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져야 만족을 느끼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의 그림이나 형상, 동정녀 마리아나 믿음의 선진들의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화가나 조각가의 상상엔 불과한 것이지 실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나 믿음의 선진들은 피조물로서 경배의 대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그 앞에 경배하고 기도할 때에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고 기도할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까지 우상이라’ 하기도 하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상징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유는 예수님 보혈의 공로와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나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또 예수님께서 양을 안고 계신 성화나 최후의 만찬 등의 그림 같은 경우도 그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나 그 행적을 표현하기 위한 그림일 뿐 성화를 신성시하며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만든 놋뱀을 바라봐 죽지 않은 내용(민 21장)을 가지고 “모세도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놋뱀의 형상을 만들게 한 것은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주신 것입니다. 놋뱀을 본 사람이 멸망받지 않은 것처럼, 사망의 길로 가던 영혼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됨을 나타내지요.

2. 우상의 영적인 의미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부모나 남편, 아내, 자녀 혹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바로 이들이 영적으로 우상이 됩니다. 이 말

씀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하나님께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한다고 해서 믿지 않는 부모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 주일을 어긴다면 이는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 뿐 아니라 부모를 진정 사랑한다 할 수 없지요. 구원받도록 전도해야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녕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원수 마귀로부터 지켜줄 수 없고 불치의 병이 걸릴 때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친히 자녀를 지켜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며 범사에 행통한 복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교회에 가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명예와 권세를 지키기 위해 계명을 어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이 외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어떤 사물이나 물건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할 때와 불순종할 때의 축복과 저주

출애굽기 20장 5-6절에 “...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의 질투는 추하고 더러우며 상대에게 해를 입히지만 하나님의 질투

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만약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외면하시므로 원수 마귀 사단이 주관하도록 내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각종 시험 환난, 재앙으로 마음이 가난해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자녀들이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며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삼사 대까지 죄의 보응이 이르게 됩니다. 곧 여러 질병이나 불구자, 정신 이상자 등이 나오고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상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다 해도 자손들 중에 철저히 회개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심히 숭배하며 악을 쌓았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고 주님을 영접한다 해도 조상들과 영적인 끈으로 묶인 것과 같아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 계속 송사하며 어찌하든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훼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비하게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자신의 악을 버리면서 하나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킴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천 대까지 곧 영원히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재앙은 삼사 대까지 이르나 축복은 천 대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깨우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신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축복이 임합니다. 하지만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해 진리 안에 거하며 우상으로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영육 간에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천 대까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3:00 PM
주일 저녁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다녀오실 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불같은 기도를 하려면?

보혜사 성령은 성도들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며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바를 알려 주시며 친히 빌 바를 간구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후반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했고, 로마서 8장 27절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했다.

그러므로 성령의 주관을 정확히 받으면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게 되며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마음도 몸도 뜨거워지고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앞두고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불같은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첫째 자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어렵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어떤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정해 놓고 기도하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신속히 역사하실 길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응답을 빨리 받을 수도, 늦게 받을 수도 있기에 하나님 방법대로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응답받을 시점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기도 내용도 자신의 생각 속에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폭넓게 해야 한다.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기도하면 어떤 제목으로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동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흐름과 다르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도 입기 어렵다.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성령과 하나 되어 기도해야 한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으로 성령과 마음이 하나 돼 기도할 때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다.



둘째 마음에서 악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마음에서 악을 버리는 만큼 불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마음의 악이란 열심히 성결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에 아직 남아 있는 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악이 발견되면 바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에 비록 성결 되지는 않았다 해도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쌓이지 않는다.

그런데 마음의 악이 드러나도 자신이 악한 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의와 틀이 강해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뒷사람에 대해 불평불만하고 서운해하고 판단 정죄하면서도 그 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니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도하지도 못한다.

이처럼 자신의 악함을 깨우치지 못하고 자기 틀 안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니 응답받을 수 없다.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했고, 잠언 15장 8절에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했다. 또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했다.

따라서 자신의 악을 깨우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며, 발견해 버리는 만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을 입어 기도할 수 있다.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불같은 기도를 올릴 때 마음의 비진리를 신속히 벗어버릴 수 있다.



셋째 교회와 목자와 영혼들을 위해 중심에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마음 중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혹여 기도한다고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사랑함이나 간절함도 없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아예 다른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길 원하는 목자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목자의 마음은 양 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지를 알아서 그 마음이 되어 기도해야 할 것이다.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 목자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맞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다.

또한 죄악이 심히 관영한 이 세대 속에서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또다시 범죄하지 않기를 바라는 애절한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한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도 어찌하든 다시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목자의 심정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뤄주셨음을 믿고 기도하되 마치 내 집을 짓는 것처럼 여기고 사랑과 정성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마음 중심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할 때 온전한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 따라서 얼마나 마음 중심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느냐에 따라 그 상급이 달라진다.



10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4.9.28~10.04
October

이재욱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창세기 강해 44-48
- 마음 다해 심고 거두는 법칙 1-4
- 예언 3
-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
- 육체의 결여 4-8
- 일곱영 1
- 요한계시록 강해 31
- 목자와 하나
- 믿음을 책망하시니 1-4
- 요한일서 강해 3-7
- 우리의 열심은

GCN TV설교

- 악을 미워하는 것 1 (이수진 목사)
- 게으른 자 (이미영 목사)
- 이 사람 잊지 말기를 (이미경 목사)
- 능력 1/ 영의 세계 6 (이화선 목사)
- 음기 강해 8/ 생명수 8 (신동초 목사)
- 열재앙 4 (정구영 목사)
- 네 생물 (천우진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17
- 옛날 옛적에 2
- 모두 드려요 15
- 흥겨운 소리 10
- English 15
- 만민지킴이 10
- 찬양 드려요 30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27
- 꿈도 토티 마음도 토티 36
- 뷰티풀 라이프 9
- 플로리스트 14
- 향기 26

해외성회 및 교육

- 페루 연합대성회 1
- 2014 지역장,조장, 구역장 교육 3-4
- 회상 15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이재록 목사님을 통한 권능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알랭 루밤바 성도
(공고민주공화국 국회의원, 44세)

저는 대학시절 라디오 방송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후 주님의 은혜로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에서 국제 비정부기구 산하 사무소장 겸 대표, 외무부차관, 재정부차관을 거쳐 2011년부터는 국회의원으로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2006년, 외무부차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다니던 교회에서 거짓 음모로 인해 충격을 받은 저는 배신감과 절망감으로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에서 기도할 뿐이었지요. 그 해 2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재록 목사 초청 연합대성회'가 성황리에 개최됐고, 생중계된 국영방송을 통해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014년 2월경, 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우연히 키타사만 민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차를 멈추고 교회 문에 붙어있는 안내문과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8년 전 큰 이슈가 됐던 '2006 콩고연합대성회'의 강사인 이재록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교회의 지교회였지요. 저는 마음이 끌려 며칠 후 교회를 방문해 교회 안내책자를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 번에는 교회 안을 둘러보았지요. 감동이 되면서 '이 교회에 다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3월, 저는 가족과 함께 키타사만민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예배 후 이호수 담임 목사님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만민의 사역을 소개한 뒤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에는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있으며, 믿음의 분량대로 천국의 처소가 달라진다는 사실에 저는 영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믿음이 아주 작다는 사실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천국』 저서를 통해서도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을 비롯해 가장 영광스러운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음을 안 뒤 강한 영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뒤 제 관심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집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깨우치며 윤리와 지식을 새롭게 하니 언행도 달라졌지요.

가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돈만 잘 벌어도 주면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기에 가족 휴가 때에도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휴가를 보냈는데, 가족 모두 아주 행복했습니다. 또 이제는 더 이상 부부 싸움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주일 예배가 마쳐지면 집에 돌아와 그날의 설교 말씀을 가족과 함께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8월에는 미국에 있는 제 집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받은 후 지킴받았지요. 또 탈장으로 인한 통증으로 2년간 고통받았는데, 윤인숙 사모님(케냐 나이로비만민교회)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후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 권능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조국 콩고민주공화국에 다시 한 번 오시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주님 사랑 안에서 날로 번영하는 국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불치병 B형 간염 등 많은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김향순 집사
(광주만민교회, 51세)

1998년 어느 날, 광주 무등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던 중 '제6회 이재록 목사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지인 허현주 집사님(여수만민교회)이 건네준 간증수기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인 이재록 목사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었지요. 이에 저는 광주만민교회에서 동시화상예배로 부흥성회에 참석해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광주만민교회(담임 박형렬 목사)에 등록한 저는 얼마 되지 않아 7년 동안 앓던 만성중이염을 치료받는 체험을 했습니다. 광주만민교회 성도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과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받은 뒤 몸에 따뜻한 기운이 돌더니 치료됐지요.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B형 간염 증세도 치료받았습니다. 저는 B형 간염 보균자로 태어나 머리와 눈 통증, 구토 증상이 가끔씩 나타나고 피곤함이나 무기력증으로 사회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와 눈 통증, 구토 증상이 사라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측 고관절 이상이 있었는데, 네 살 때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우측 고관절 탈구 현상이 잦아 그때마다 다리를 절고 다녔습니다. 이로 인해 우측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발육해 불편함이 많았지요. 2012년 말부터는 발목, 정강이, 무릎 통증까지 와서 지팡이를 의지해야 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저는 다리 통증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지만 오

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던 중 '당회장님 기도를 받으면 치료받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2013년 5월 17일 산상기도를 다녀오신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통증이 사라지고 곧바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됐지요. 더불어 남아 있던 피곤함이나 무기력증 증세도 사라져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B형 간염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남편 문종선 장로님도 무기력증과 저혈압을 치료받았으며, 서울중앙에셋(주) 호남지사에서 영업지원부장으로 일하면서 축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을 즐겨 심으며 저는 솔리스트로서, 남편 장로님은 성가대 지휘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혈청검사 결과] 기도받기 전 혈청검사에서 B형 간염 항원 양성이었으나 기도받은 후 음성으로 전환됐다.

국내 지교회, 지정성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사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요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잠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포항민성결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남포항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구미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민교회 전북 군산시 개운5길 57,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성곡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2)489-9857, 010-2208-5719
- 결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430-3312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5526-5746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